

2018년 7월 14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9) 잠언: 지혜, 경외, 창조”(잠 8:22-36)

<도입>

잠언은 금언집처럼 구성이 되어 문장 하나로도 훈계와 교훈이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단순한 경구들의 모음으로 보면 불경이나 다른 금언집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잠언의 주제는 기독교의 큰 주제인 지혜입니다.

[1] 지혜: 창조의 명공

본문은 '나'라는 1 인칭 대명사로 표현된 지혜의 특징과 교훈을 신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

- (1) 창조 전에 있었음(22-26 절)
- (2) 창조 때 있었음(27-30 절)
- (3) 기쁨의 교통(30-31 절)
- (4) 들음으로 지혜를 얻으라(32-34 절)
- (5) 생명을 얻으라(35-36 절)

지혜는 피조계에서 매우 큰 스펙트럼 안에서 역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체 각각의 형태와 속성과 기능을 지니도록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생육과 번성은 사랑하는(속성) 남녀를 통하여(기능) 자손을 낳는 방식으로서 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번개를 맞고 죽은 나무는 썩어가면서도 수많은 종류의 미생물과 곤충의 서식처가 되어서 환경을 지키고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의 비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도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쓸 때 그렇습니다(뒤에서 살펴). 자기만을 위해 쓰지 않으려면 주님께 듣고 배운 지혜로 남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길을 걷는 복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창조주와 교제하며 말씀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편하고 이익이 될 것만 들으려고 하면 소통은 둘째치고 자신만 드러내는 대화가 되고 맙니다. 슬픈 현실은 우리 모두는 이런 자기중심적 성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2] 지혜이신 그리스도

본문의 '나(= 지혜)'는 창조에 동참하셨던 성자 그리스도를 의인화 한 것입니다.

**32-33 절** '이제 내(지혜 = 그리스도)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분의 특징은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 뜻을 듣고 확신하고 행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고(요 5:17),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하시고(8:38), 또한 아버지께서 당신 말을 들어 주셔서 감사하십니다(11:42).

이 땅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교통의 관계는 창조 전부터 영광스러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17:5)

예수님의 지혜는 (신적) **생명의 길**을 걷게 합니다. 신적 생명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인애(헤세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사랑을 터득하지 못하고 자비와 용서를 배우지 못했다면 지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이러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보여줍니다.

**[3] 경외함과 생명의 말씀들**

지혜를 얻게 하는 들음은 겸허, 인내, 자신을 비우는 자세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분께 나아가는 태도와 반응을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1:7, 9:10) 그러면 생명을 향하게 하는 말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1) 잠언에 보면 생명 나무가 언급됩니다. (창세기에 3 회, 계시록에 4 회, 잠언에 4 번)

i. 3:18 지혜는 생명나무라

(\*아담과 하와는 지혜를 얻으려고 선악 열매를 먹음. 그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했다)

ii. 11:30 의인이 받는 열매는 생명의 나무

iii. 13:12 소원이 이루어지면 생명나무를 얻는다

iv. 15:4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다

창 3 장에서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으셨는데, 잠언에서는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창 3 장에서는 생명나무를 막으셨지만 그후 주님은 창조의 회복을 위해 백성들을 찾아오심으로써 생명나무의 축복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계 22 장은 생명나무의 풍성함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에덴의 회복을 나타내는 생명나무의 충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에덴보다 더 풍성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2) **4:23**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 모든 인격(사람의 총체적 됴됨이)의 중심으로서 주님 사랑을 받고 흘러 보내는 영적 기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선악 열매로부터 얻은 가짜 지혜로 채우면 자기 의와 자기중심성을 강화합니다. 따라서 우리 삶이 참 사랑으로 향하도록 생각과 태도와 습관과 시각을 새롭게 하는 생명나무의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

**29:18**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말씀의 계시에 깨어 있어서 지혜를 얻어 생명(사랑)의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은 성경적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2. 어떻게 지혜를 배우고 얻을 수 있을까요?(위 [2]와 [3]을 참조해 보세요) 생명나무의 지혜를 얻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할 것인지 나누어 봅시다.